



보도	2025.4.2.(수) 14:00	배포	2025.4.2.(수)
담당부서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 김재갑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 이동재 (02-3145-7260)

금융감독원, 주요 법인보험대리점(GA) 대표 간담회 개최 - GA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

I 개요

- '25.4.2.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법인보험 대리점(GA)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
 - 이번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사항을 공유·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으며,
 - GA업계에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, 인카금융서비스, 지에이코리아 등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9개사의 대표가 참석

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5.4.2.(수) 14:00~15:30
- ☑ 장 소 :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(서울 종로구)
- ☑ 참 석 자 : (금 감 원) 이세훈 수석부원장, 보험검사3국장
(GA업계)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* 대표, 보험GA협회 부회장
* 한화생명금융서비스, 인카금융서비스, 지에이코리아, 글로벌금융판매, 프라임에셋, 케이지에이에셋, 메가, 한국보험금융, 엠금융서비스
- ☑ 논의내용 : ①2025년 GA 검사·제재 중점 추진방향, ②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, ③GA 내부통제 강화, ④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, ⑤GA 제작 광고 건전화 방안 등

II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발언 요지

◆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보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GA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당부를 전달

1 GA 스스로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

- 그간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,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·사고가 지속 발생*

* (예) ① GA 검사 시 대규모 허위·가공계약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으며, 심지어 이를 통제해야 할 지점장 등이 주도
②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었으며, 이 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

-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(患部)는 도려내고,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 판단됨

2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

- 최근 '영업 제일주의 관행'에 편승한 일부 GA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GA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*을 받는 형세

* (예)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도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며 GA업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

- 특히,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여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위축 시 신중*을 기할 필요

* (예) 위축 시 대상자의 제재이력, 영업건전성 지표 등을 고려

- GA업계의 자정을 위해 초대형 GA와 협회가 주도하여 힘써주시길 바라며, 금융감독원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

3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보험소비자의 권익

-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이슈들*을 보았을 때 '과연 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'라는 생각이 듦

* (예) ① 자회사 GA의 과도한 모회사 상품 판매비중을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하기보다 모회사 상품을 밀어주는 전략 내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

② 최근 이슈였던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'높은 환급률', '절세효과'만 강조하여 판매하거나 절세와 무관한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례 다수 확인

-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전사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필요

Ⅲ 참석자 주요 발언

◆ 금융감독원이 제시(발표)한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

1 GA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

- 법인보험대리점 대표들은 GA의 영향력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,
-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(예: 검사주기 완화 등), GA 자체 적발·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·완화 등을 요청

2 공정 경쟁질서 확립에 힘써주길 희망

- 일부 GA에서 여전히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을 야기하고 있는바, GA업계 자율협약*이 온전히 준수되길 바라는 한편,

* (주요 내용)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자제, 지원금·시책 지급 시 1,200%를 준수, 허위·과장 광고행위 금지, 브리핑 영업 시 판매준칙 준수, 상품 비교·설명 제도 안착 등

- 위법행위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써주길 희망

3 광고 심의 효율화 등 요청

- 요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동영상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바, 협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신경써주길 바라며,
- 불법적인 잠재고객(개인정보) DB를 수집·판매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청

Ⅳ 향후 계획

-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간담회,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